

신라~조선 호남지역 성보문화재 ‘한자리’



‘금동여래입상’



프로젝션 맵핑(미디어 파사트) 기술을 활용해 선보이는 국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광주박물관 15일~10월 22일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

구산선문 성보 300여점 전시

‘...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 첫 공개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홀로그램 기술 전시 콘텐츠 선보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구산선문(九山禪門)과 관련된 성보문화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구산선문은 신라 말기 선종이 들어오면서 9개의 산문을 중심으로 생겨난 불교의 갈래를 일컫는다. 즉 당대 사회상황에서 사유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아홉 산문이기도 하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15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卍心是佛)’를 개최한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선종의 가르침이자 정신이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다. 즉 부처의 가르침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 항상 선한 마음을 머물게 하면 그것이 곧 성불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말과 상통된다.

이번 전시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의 개창과 함께 그 중심에 있었던 호남지역 산문의 귀중한 성보문화재를 한데 모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곡성 태안사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956호 ‘청동대바라’를 비롯한 보물 7점과 도지정문화재 9점 등 모두 300여 점이 넘는 구산선문 관련 성보문화재들이 전시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하버드대학교 앤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이 국내외 일간에 처음 공개된다는 점이다.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은 1457년~1464년에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 전해지는 사적이 대부분 조선 후기 것임을 고려하면 제작시기가 이른 편이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밖에 국보 제42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과 국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을 4

면홀로그램 기술과 프로젝션 맵핑(미디어 파사트) 기술로 개발한 전시콘텐츠가 새롭게 선보인다. 높이 280cm가 넘는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실물 크기로 구현한 철불의 모습을 전시실 내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프롤로그 ‘선(禪),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에서는 선의 가르침을 종파로서 새롭게 발전시킨 달마대사를 그린 불화와 선종 관련 대표 불서를 만날 수 있다.

1부 ‘구산선문이 열리다’에서는 당나라에 다녀온 신라의 승려들과 그들을 후원한 장보고 선단, 구산선문의 개창에 대하여 소개한다. 보물 제1871호 ‘염거화상탑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입상’ 등을 전시한다.

2부 ‘호남지역, 구산선문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구산선문의 중심에 있었던 호남지역의 세 선문, 남원 실상사와 장흥 보림사, 곡성 태안사의 진귀한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태안사에 소장되어 있는 지름 90cm가 넘는 대형 바라(보물 제956호) 등을 볼 수 있다. 신라 하대에 꽃을 피운 호남지역 구산선문의 선맥은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그 범용이 잘 계승되고 있다.

3부 ‘선맥이 이어지다’에서는 ‘고봉국사 불감’ 등의 전시품을 통해 선맥을 계승한 선사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된다.

4부 ‘선과 차는 하나’에서는 선종과 차문화에 관계된 유물을 비롯하여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에 정점을 찍은 초의선사와 관련된 전시품을 전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구산선문의 역사와 선맥의 계승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진귀한 기회이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신라시대 꽃을 피운 호남 구산선문의 선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선맥을 계승한 선사들의 활동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물 1871호 ‘염거화상탑지’

‘송영옥의 예술세계와 전후 재일 1세대 미술’

17일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서 세미나

하정웅컬렉션 ‘송영옥 탄생 100년’전을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송 작가의 작품세계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17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옛 상록전시관).

‘송영옥의 예술세계와 전후 재일 1세대 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의 ‘자이디치의 자화상’, 김인덕(청암대 교수)의 ‘재일코리아의 역사와 삶’, 지바시게오(전 일본 추부대학 교수·미술평론가)의 ‘전쟁 직후의 리얼리즘, 일본과 재일의 작가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김영순(부산시립미술관 관장), 정금희(전남대 교수)씨가 토론을 맡는다.

송영옥은 일제강점기의 불행한 디아스포라, 해방 이후 재일교포 사회의 ‘제2의 분단’을 몸담으며 겪어낸 작가로 재일 한국인의 정체성, 첨예한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 남한의 민주화, 마이너리티의 삶과 인권, 부조리한 현실 등을 담은 작품을 발표해 왔다. 전시는 9월 17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영옥 작 ‘이사’

시민강좌 묶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 출간



호남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기획된 시민강좌를 책으로 묶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3’이 출간됐다.

1·2권에 이어 출간된 이 책은 지역문화교육연구소(이사장 백수인)와 호남지방문화연구소(소장 김대현 전남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기획했다.

책에는 ▲한국사에서 전라도 바로보기(조법중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 ▲미술로 보는 한중일의 문화지형(이상준 한성대 예술대학 교수) ▲조선의 만든 힘, 책과 책벌레들(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문화공간으로써의 누정과 가사문학(김신중 전남대 국문과 교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역사인식은 무엇인가(고석규 목포대 사학과 교수) ▲교문서 속의 노비와 양반(안길정 광주시 5·18 진실규명단 연구원) ▲전라도 택리지-어디에 살 것인가(신정일 문화사학자) ▲호남의 감성으로 그린 서화기(이선옥 미술사학자)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역사문화유산의 활용(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하서 김인후와 고봉 기대승의 학술과 신정(新政)(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등이 실렸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지영 장편소설 ‘도가니’ 100쇄...83만권 팔려



출판사 창비는 공지영의 장편소설 ‘도가니’가 100쇄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니’는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삼은 공지영의 대표작이다. 2009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83만 부가 팔렸다. 실제 작품의 무대는 광주인화학교였다.

2011년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며 장애인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다. 같은해 연말에는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창비는 100쇄 출간을 기념해 장정을 새롭게 꾸민 특별개정판을 냈다. 작가는 100쇄 인세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하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